

## 속 기 록

- ☐ 회 의 명 : 제 422차 위원회 전체회의
- ☐ 일 시 : 2026. 6. 26(금) 14:05~16:43
- ☐ 장 소 : 대학로 아르코미술관 3층 회의실, 온라인 줌
- ☐ 출석위원 : 이범현 위 원 장 (인)  
구문모 위 원 (인)  
김대현 위 원 (인)  
김상연 위 원 (인)  
문삼화 위 원 (인)  
서영수 위 원 (인)  
성기숙 위 원 (인)  
왕치선 위 원 (인)  
임영욱 위 원 (인)  
진 솔 위 원 (인)  
차지언 위 원 (인)

## 1. 성 원 보 고

이범헌 위원장 : 지금으로부터 제42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남상규 노동조합 비대위원께서 근로자 대표로 참석하셨고, 회의 운영의 투명성과 제언 관리 효율성을 위해 극장운영팀 박영준 대리를 포함한 사무처 직원 20여 명이 온라인으로 참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 성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은 성원 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위원 11인 중에서 왕치선 위원님은 온라인으로 참석하고 계셔서 모두 11인 모두 참석하셔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 2. 개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예. 이상 보고를 받으신 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22차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전체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오늘 위원회 전체회의에는 2026년 예비예술인지원사업 후속 지원대상 결정의 건 의결안건 1건과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고 등 보고안건 3건을 상정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3. 전차(前次) 회의결과

이범헌 위원장 : 다음으로 송시경 사무처장은 전차 회의의 주요 사항을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예, 회의자료 3쪽입니다.

지난 5월 27일 개최한 제419차 전체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어 4건 모두 원안의결되었고, 5월 29일에 개최한 제420차 서면회의 의결 안건 1건 그리고 6월 10일에 개최한 제421차 서면회의에 의결 안건 4건이 상정되어 모두 원안의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전차 회의 결과에 대한 내용은 3페이지 하단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4. 의 결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지금부터 의결사항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전번호 제1214호 2026년 예비예술인지원사업 후속지원 지원대상 결정의 건입니다.

본 안전은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리 예술인재양성팀장 :** 예술인재양성팀 왕우리입니다. 의결안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의결안전은 예비예술인지원사업 지원대상에 대한, 2025년도 저희가 지원했던 지원사업에 대해서 후속지원을 하게 되었고요. 그것에 대한 지원심의 결과를 의결해 주시는 건입니다.

3번을 보시면 주요내용은 지원결정건수 총 20건, 지원결정금액 3억 9,400만 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표를 보시면 예비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후속지원에서 9건, 예비단체의 예비예술인 후속지원 11건 등 총 20건이고요. 금액은 3억 9,400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예비예술인지원사업은 예비예술대학과 예비예술단체를 2개의 트랙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비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후속지원은 예비예술인의 실무 경험을 통해서 커리어 방향을 확인하고 전업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을 마련하였고요. 예술단체는 예술현장 진입 후 창작 역량과 실무 경험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사업을 설계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예술예술인 대학생들에게는 인턴십 기회를 주고요. 예비단체의 예비예술인들에게는 작품 발표 기회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은 예술대학 및 예술단체의 추천 예비예술인으로 했습니다.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현장연계지원사업 후속지원은 최대 1,000만 원씩이고,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최초발표지원사업 후속지원은 최대 3,000만 원의 지원규모로 확정했습니다.

추진경과를 보시면 3월 전체회의 때 의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후속지원 관계자 라운드테이블을 4월 17일에 개최했고요. 예술대학 및 단체에게 귀감이 될 만한 예비예술인 추천은 4월 27일부터 5월 4일까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원신청 접수를 5월 13일부터 6월 5일까지 엔카스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심의는 6월 10일부터 6월 15일까지 서면으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결과보고에 대한 오늘 의결해 주시면 결과발표를 6월 30일 화요일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2026년도 예비예술인지원사업에 2차 인터뷰 심의까지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 중에 분야별 1인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시면 심의위원님 명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평가는 저희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기로 다 결정하고 나서 어떤 사업적 수월성이나 우수성을 평가하는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원사업 신청서에 대한 컨설팅 위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서면 평가로 충분히 진행을 할 수가 있었고요. 이 지원신청서의 적격 여부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가·부 여부로만 판단을 해서 지원신청을 한 모든 대상에 대해서는 ‘가’로 해서 지원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심의 기준 같은 경우에는 예술대학의 예비예술인 후속지원은 인력이 갔을 때 좋은 인턴십 기회를 가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았고요. 예술단체의 예비예술인 후속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계획의 타당성과 계획의 완성도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9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2025년도에 참여했던 예비예술대학이 총 12군데였습니다. 총 12군데에 인턴십을 1명씩 지원하기로 했으나 사업신청을 안 해주신 단체가 3군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 9군데가 확정되었고요. 표에서 제일 오른쪽을 보시면 현장 인턴십이 파견되는 단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체가 저희한테 엔카스로 인건비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예술단체들이 신청한 내역을 보실 수 있는데요. 2025년도에는 예술단체가 총 20곳이었습니다. 20곳의 사업 결과를 다 모니터링하고 나서 평균, 평점 이상이 되는 11개 단체를 선발하였습니다. 11개 단체가 추천 예비예술인이라고 하는 11명을 신청하였고요. 이 신청인들이 낸 지원신청서를 심의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총 접수결과 20건에 4억 2,000만 원의 금액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속지원사업 예산이 4억 2,400만 원이었는데요. 10페이지 하단의 지원결정 내역을 보시면 예비예술대학에 9건이 되었기 때문에 9,000만 원. 그리고 예비예술단체 후속지원으로 3억 3,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지원서 상에 예산의 과다한 면이 조금 있는 5곳을 일괄적으로 500만 원씩 감액해서 3억 400만 원으로 해서 총 3억 9,400만 원을 지원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11페이지를 보시면 심의 제척·회피 내용은 없었고요.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일에 발표 예정입니다.

12페이지 붙임 파일에서 자세한 지원결정 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받으신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나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특이사항이 없으시면 의결안건으로 바로 부의를 하고자 하는데 혹시 추가의견이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없으시면 가부 투표로 하는 거수 방식이 아니라 전원 만장일치의 개념으로 합의가 된 것으로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재청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원안의 내용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 5. 보 고 사 항

**이범헌 위원장 :** 다음은 보고사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설명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라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위원회의 진솔 위원님께서 좋은 경사가 있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민통합위원회 홍보대사로 위촉이 되셔서 조금 더 대한민국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 활동에 직접 나서시게 되었습니다. 박수로 홍보대사 위촉을 축하드립니다.

우리 9기 위원님들께서 각 분야마다 앞으로 좋은 경사가 계속해서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스타트를 진솔 위원님께서 잘 끊어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이어서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고안건은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으로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안)입니다.

이 구성안은 위원님들이 향후 소위원회를 구성하실 때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초안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변동 가능성이 많고 이것을 가지고 더 발전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에 나와 있는 개요 부분입니다.

저희 9기 위원회 구성에 따라서 8기 소위원회 운영이 종료되고 신규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와 4조 2항에 8기 소위원회 종료와 9기 소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구성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오늘 소위원회 개요나 역대 소위원회 운영현황, 직무 그리고 구성 초안을 보고드리고요. 오늘 보고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저희가 이후 안내를 드리겠지만 7월에 나주에서 1박 2일 워크숍 논의를 예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 소위원회 구성을 확정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7월 말에 위원회 의결을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소위원회 개요인데요. 소위원회 직무는 소위원회 운영규정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소위원회는 성격에 따라서 집행적 성격도 있고 자문적 성격이 강하고요. 또 위원회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기구의 역할도 있고 기타 위원회에 안건을 제안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 9조 소위원회의 직무에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는데요. 특히 제 9조 2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처음 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2005년도에 들어왔던 규정인데, 당시에는 아마 위원회가 위임한 분야에 대해서는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심의까지 했는데 사실 이것은 거의 적용이 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나머지 2항, 3항, 4항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기는 구성 후 1년이 원칙이고 연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장은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회 동의를 거쳐서 위원장이 위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소위원회 안건을 나중에 올릴 때에는 기본적으로 소위원회 위원장까지 다 들어간, 위원님들이 각각 소위원회 구성과 어느 소위원회에 들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명단이 확정되고 완성된 자료를 가지고 의결안건으로 올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7월 워크숍을 할 때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간사팀은 소위원회별 운영 목표를 고려해서 저희 조직 체계에서 가장 업무적으로 근접한 팀이 간사팀을 맡게 되어 있습니다. 소위원회를 여는 경우에는 사무처가 회의결과를 정리하고요. 소위원회 위원님들께 회람한 후에 차기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장님께서 직접 보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8기 소위원회 구성 결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8기 소위원회는 기능 중심의 소위원회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기관 경영과 관련된 소위원회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창작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특히 8기 위원회 때는 사회적 가치 확산, 민간 재원의 유치 등에 대한 관심이 높았습니다. 문화일반 위원님들도 많아서 이쪽으로 3개의 소위원회를 운영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구성 결과인데 저희가 2023년, 2024년, 2025년 3년의 임기 동안 기본적으로 3개를 운영했고요. 기본적인 구성에서 경영전략소위원회와 예술창작소통소위원회는 유지가 되었고요. 2023년에 윤리·인권소위원회가 있었습니다. 16페이지 하단에 세부내용을 보실 수 있는데요. 예술인의 권리침해 방지 및 성평등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 부분, 블랙리스트 이후 제도개선 등 검토에 대해서 1년 동안 소위원회를 운영했었고요. 이후 2024년도와 2025년도에는 예술가치확산소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비상임위원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소위원회에 참여하실 수 있고 별도의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특이한 부분은 주로 우리 내부 위원님들 중심으로 운

영이 되었다는 부분이고요. 이 당시에 내부 위원님들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취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장님께서 매주 아르코익스프레스라는 것을 운영하면서 현장 예술인들과 만나는 채널을 가동하셨고요. 저희 사무처에서 외부 관계자들과 간담회, 현장업무보고나 공청회 등 여러 가지를 의견수렴 절차를 운영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소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소위원회를 통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수렴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수렴된 다양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하고 어떻게 우선순위를 뒤서 사무처 업무에 반영할 것인가를 중심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렇게 운영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사무처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위원회는 2가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기관 경영과 관련하여, 명칭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경영전략소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 혁신소위원회 등의 소위원회가 1개 필요합니다. 그 아래 그림을 보면 표가 있겠지만 저희 문예기금 안정화 문제나 비전체계 그리고 대외적인 현황에 대응해야 하는 부분과 제도개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다루는 영역이 있을 것 같습니다. ESG 같은 것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장소통창작소위원회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예술창작생태계소위원회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 사업에 반영하는 부분들입니다. 내용을 보시면 분야별, 사업별 현안, 정책수요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역협력이나 신규 사업 발굴 등과 관련된 협의 창구로도 기능하기 때문에 관련해서 2개 소위원회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다를 겁니다. 저희가 아까 오전 간담회에서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소위원회가 필요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후 워크숍 때 논의해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운영 참고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희가 정리를 해 봤는데 17페이지 하단에 있는 것은, 1기 소위원회 때는 소위원회가 12개가 운영되었습니다. 아마 위원회로 전환되고 장르별 위원님들도 들어오시면서 여러 가지 해야 할 일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현장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소위원회 숫자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는 맥락은 이해가 되지만 그 이후부터 장르별 소위원회가 운영된 적은 없습니다. 기능별 소위원회로 운영이 되었고요. 장르 중심으로 가게 되면 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장르 간 상충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뭔가 장르 부분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올라오는 게 오히려 좋겠다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숫자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대체로 기능별 소위원회로 운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은 약간 창피한 얘기인데요. 소위원회 운영예산인 기관운영비가 사실 충분하지 않습니다. 저희 기관운영비가 깎이는 부분이 있었고요. 전체가 아니라 경영전략소위원회를 운영했을 때를 하나의 예로 들면 이 정도로 운영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더 필요하다면 사무처에서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은 이 정도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리야 할 것 같아서 이 내용을 넣었습니다. 이 외의 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본부나 해당 팀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구조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위원회 워크숍 때 소위원회 구성이 완료돼서 합의가 되고 각각 소위원회별로 저희 위원님들이 배치되면 소위원회 위원장을 정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7월 말에 위원회의결을 받아서 올리고 진행하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논의되지 않는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하면 이 부분도 생각하셨다가 저희 워크숍 때 논의가 될 수 있도록 미리 사무처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회의자료를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저희가 1기부터 8기까지 소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기수별로 소위원회가 두세 번씩 바뀐 경우가 있고 소위원회 수는 중복을 제외했을 때 어떤 소위원회가 있었는지 명칭을 나열해 봤습니다. 저희가 처한 정책 환경에 따라 달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무처에서 원하는 것은, 특히 공연예술분야는 위원님들께 많은 부분을 의존하고 같이 논의하고 만들어가기를 원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이 빨리 저희 사무처의 업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사업팀은 준비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 필요하다면 개별적으로 연락을 하시고 만나서 정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현안이 되게 많이 있고 저희가 의결을 받으면 7월 말이기 때문에 올해의 기준으로 봤을 때 소위원회를 12월까지 운영한다고 하면 그리 기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소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논의를 하시겠지만 일단 사무처의 의견수렴을 한 결과 외부를 너무 많이 하기보다는 내부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위에 참여하시면서 같이 논의하는 구조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소위원회 구성 논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수고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주시고요. 오전에도 조금씩 언급을 하시면서 일부 사항은 보고를 들으셨을 텐데 허심탄회하게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거수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문모 위원 :** 소위원회 종류는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18쪽 상단을 보시면 2026년 소위원회 운영예산에 대해서 1개 분야에 대해서 예산 규모에 대해 예측을 하셨는데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요. 여기 소위원회 규정에 보면 외부 자문도 있고 조사도 있고요. 깊게 들어가면 정책연구도 들어가거든요. 만약 그런 것들이 발생하면, 회의 자체만 갖고는 390만 원이 있잖아요. 이것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할 텐데요. 그런 예산은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일단 소위원회가 운영될 때 필요한 소요 부분이 있다면, 기본적으로 세팅이 된 예산으로 기금운용비가 이 정도로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사무처가 고민해서 가급적이면 이런 부분이 예산 때문에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맞춰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말씀해 주신 내용처럼 구문모 위원님의 의견사항에서 표준 회의비에 대한 기본 산출내역이고요. 각 소위원회가 이 정도의 기본 회의비 책정이 규정에 의해서 되고요. 그 외에 연구조사비용이나 현장의 답사가 이루어지는 부대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검토하고 그 소위원회를 통해서 현실에 맞게 조절할 수 있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소위원회라 함은 위원회의 의결안건이나 보고안건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과 경영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미시적인 관점에서 리서치를 하고 의견을 내서 경영과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모임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2005년 진흥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 민간자율로 전환이 되었을 때 무용 분야의 소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 후에도 직간접적으로 소위원회 활동을 들어서 소위원회의 필요성은 매우 공감하고 있거든요. 저희 8기 때 3개가 운영되었는데요. 경영전략, 창작소통, 가치확산.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만 성과라고 보면 가치확산 쪽에서 된 것 같고 경영전략소위는 그때 가능 이슈가 되었던 것이 지금도 현재진행형으로 고민거리인데요. 문예진흥기금 확보의 건에 대해서 집중 논의가 되었고 국회에서도 1번 세미나를 가졌습시다만 성과로는 이어지지 않아서 현재도 문예기금이 고갈 상태로 그대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 쪽은 전문가들에게 예산을 투입해서 용역을 줘서 작업도 했는데 그 후로 실효성이 없게 돼서 예산의 낭비성이 있지 않았나 하는 반성과 성찰을 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소위원회 운영이 되려면 성과를 낼 수 있게 앞으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9기 위원님들 정관, 지침, 규정 등을 보시다 보면 실제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실하고 안 맞는 것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규정, 지침, 정관을 재

정비하자는 것을 제가 제안을 했고 가칭 제도개선위원회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현실에 맞는, 또 앞으로 위원회가 나가기 위한 긴요한 규정을 만들어보려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 반대하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시도조차 안 되었는데요. 우리 9기 위원님들은 제가 볼 때 그런 작업도 필요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19쪽을 보면 8기 때 4개로 되어 있는데 저는 3개로 알고 있는데요. 윤리인권이 있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위원님이 오시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배은주 위원님이 계셨을 때요. 3개, 3개, 3개인데 합집합을 했을 때 4개의 소위원회가 운영되었다는 뜻이고 아마도 위원님이 오시기 전인 것 같습니다.

**성기숙 위원** : 오기 전에 1년간 운영이 된 게 있었군요. 제가 정확하게 8.5기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성기숙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오늘 보고사항 내용과 회의자료를 사전에 받아 보셨지만 회의자료를 가지고 조금 더 검토하시고 워크숍을 통해서 확정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미리 한 번씩 더 염두에 두시고 의견도 집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두 분의 위원님 내용들이 잘 반영될 수 있는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궁금한 게 있어서 2가지만 물어보고 싶은데요. 아까 구문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너무 작아서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거든요. 만약 별도의 활동이 될 때는 관련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셨는데요. 만약 간사 부서의 예산 말고도 정말 다른 부서까지 연결되는 업무가 된다면 다른 부서의 예산까지 같이 활용할 수 있는지가 첫 번째 궁금증입니다.

또 하나는 소위원회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TF 형식으로 중요한 이슈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소위원회까지는 아니지만 위원들이 모여서 긴급하게 대응할 수 있는 TF 구성도 별도로 가능한지를 여쭙보고 싶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알겠습니다. 우선 예산 편성에 대한 기준, 관례에 대한 기준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산을 먼저 편성할 때는 계획에 대한 단가나 물량이 정확하게 되어야 하는데 소위원회는 예측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서요. 사실 소위원회를 대응하는 방식은 그때그때 임기응변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금 기관운영비가 너무 많이 짊어져서 되게 힘든 상황이고요.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도 제대로 내지를 못 해서 계속 예산처에 애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와중에 소위원회 활동도 중요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마련해 놓은 하나의 소위원회 운영에 대한 예산을 예시로 보여드린 것이고요. 가급적 저희는 하실 수 있도록 모든 예산을 활용할 예정이지만 다 하실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구문모 위원님께서 연구를 말씀하셨는데 만약 예산이 없다면 저희가 직접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TF를 만든다는 것은, TF는 사실 의결안건이 아니라 위원장님의 결재 안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빨리 갈 수 있는 패스트트랙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시겠지만 사무처에서 어느 정도 예측이 되지 못하는 TF나 소위원회가 막 생기다 보면 실제로 로드가 생기고 사무처에서도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직원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그래서 정말 “이것은 꼭 필요하다.”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부분으로 압축적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장담은 못 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꼭 현장의 메시지가 필요하거나 필요한 행사가 있다면 어떻게든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다는 정도의 말씀을 드

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우선 실무 답변사항이 있었구요. 또 위원회 차원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의 기준이 기본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또한 워크숍에서 세부 내용들, 소위원회 하고 방향성을 결정하면서 예산에 대한 문제도 충분한 논의를 거치면서 소위원회 현실적으로 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소위원회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될지 논의할 예정이기 때문에 예산 짜기에서 예측가능한 정도의 의견도 그때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논의는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TF팀이나 추진단 등 소위원회나 위원회 이외에 특별한 정책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이 되어질 때는 말 그대로 우리 9기 위원회가 정책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할 텐데요. 제가 염두에 두는 부분은 사전에 논의도 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워크숍에서 이것도 확정했으면 하는 건 인데요, 바로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향후 비전을 어떻게 펼쳐가는 게 좋겠는가? 그러면 9기 위원회에서 지향해야 할 정책과제를 2~3가지로 압축했을 때 혹은 다른 방식으로 압축했을 때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가? 그러면 우리 위원회의 여러 정책사업들을 더 효율적이고 직접적인 성과와 펼쳐나가는 비전을 위해서는 어떻게 기구를 확대해야 하는가 등에 대해 논의를 충분히 하고요. 그 논의를 통해서 문화예술위원회의 발전적인 기구 방향 그리고 그 기구의 확대 개선과 여기에서 필요로 하는 조직구성 또 기구표 등 모든 것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TF팀이나 추진단 쪽이 조금 더 맞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문모 위원 :** 제가 하나 반성의 말씀을 드리자면, 소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많은 논의가 되었지만 사실 성과가 뚜렷하게 나온 것이 별로 많지 않았다는 것 때문인데요. 성과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다고 하면 이런 것 같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들은 성과를 염두에 두고 평가를 하거든요. 기획예산처나 문체부 등 어느 부처에서든 평가를 하는데요. 사실상 소위원회에서는 목표와 목적이 있는데 성과관리 제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2개 정도의 성과지표나 성과목표가 잡히면 자기들이 회의를 할 때 이 방향으로 가는데, 그것이 없이 회의를 하게 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다음에 10기 위원들이 뭘 했느냐고 했을 때는 남아 있는 게 없고 회의록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워크숍에서 한다고 하면 소위원회를 몇 개 하는 것보다는 성과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면 좋은 위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김상연 위원님도 이어서 바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연 위원 :** 예, 몇 가지만 여쭙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내부 위원 위주로 소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좋다는 사무처 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제가 충분히 공감할 합니다만 혹시 외부에서 들어왔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 있는지를 여쭙보고 싶습니다. 일단 그것부터 여쭙보겠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아닙니다. 저희는 애로사항이 없고요. 원래 소위원회는 다양하게 구성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과거의 경험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우리 내부 위원님이 같이 참여하고 외부 위원도 같이 구성해서 운영되는 방식인데 사무처가 알고 있는 정도와 위원님들이 사무처의 사업구조를 알고 있는 정도가 어느 정도 비슷해진 상태에서 외부 위원님들이 오셨을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돌아갔던 게 있어서요. 그래서 올해 만약 소위원회를 하게 된다면 필요하다면 외부 위원이 들어올 수 있겠지만 너무 많이 하지는 말고 우리 내부 위원들 간 논의가 합의되는 방점으로 운영되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린 것이고요. 전혀 거기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김상연 위원 : 소위원회에는 사무처 직원들이 참여를 안 하시죠?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참여를 합니다. 당연히 참여해서 저희가 보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까 주무부서를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김상연 위원 : 결과보고를 하는데 있어 증빙할 수 있는 자료들이 별도로 있습니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이것은 소위원회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한 결과를 매달 위원회 회의에 보고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일종의 회의록이나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될 안건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안한 것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결과를 정리해서 드리면 해당 소위원님들이 회람을 하신 후 위원회 보고안건 때 소위원장이 대표로 “우리 소위원회는 이번에 언제 모였고 이런 내용이 있었고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김상연 위원 : 여기까지만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생각했던 부분과 동일해서요. 소위원회를 제외하고 추진단, TF팀을 소규모로 운영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공감하는데요. 소위원회가 아니라 TF팀이나 추진단인 경우에 소위원회보다 훨씬 적은 인원이 활동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인원수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지만 독자적으로 외부의 포럼과 세미나, 정책 발표를 하는 부분에서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타이틀을 달고 독자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지 여쭙보고 싶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저희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TF가 구성되면 그 TF가 하는 외부 활동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활동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게 그 취지가 아닐까요?

김상연 위원 : 예, 맞습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당연히 저희 기관의 활동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좋은 질의답변을 해 주셨고요. 부가적으로 보면 지금 TF나 추진단, 효율적인 성과를 위한 의미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여러 다각적인 측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희 위원회에서 워크숍을 통해서 최종 합의에 이르는 정책적 방향과 그 뜻이 함께 의결되었을 때는 1개 정도가 우선이 되겠고요. 혹시 그 선상에서 이것이 또 효율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2개 정도까지 염두에 두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과 전문성 그리고 집약성이 다 필요한 것이고요. 성과의 단기적인 목표가 정확한 타임스케줄이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운영되고요. 여기에 소속된 분들은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외부 전문가 위촉이 들어와야 되고 그분들은 이 TF나 추진단의 명의로 공개 활동을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해 드리고요. 위촉장과 명함 또한 공식적으로 발급하는 그런 형태의 공식 기구를 말씀 드리는 겁니다. 소위원회 또한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공식 기구의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 정도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진솔 위원 : 2가지만 여쭙고 싶은데요. 하나는 지금 19쪽에 보면 1기 때부터 다양한 소위원회가 있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혹시 우수한 사례 그러니까 지금 계속 줄여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우수한 사례라든지 그때 소위원회 활동에서 우수한 것을 몇 개 뽑아서 실적을 공유해 드릴 수 있는지? 그러면 저희가 더 현명하게 제안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서요.

**이범헌 위원장** :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처에서는 기존 사례 중에서 자료를 워크숍 때, 일부러 가공하지는 말고 있는 성과 내용을 있는 그대로.

**성기숙 위원** : 왜 웃으시는지 알 것 같은데요. 우리 진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전에 제가 똑같이 요청드렸거든요. 업무편람을 오리엔테이션 때 주셨잖아요. 이 내용이 있었어요. 소위원회 외부 위원님들도 참여하고, 여기에 12개까지 있었잖아요. 이때는 전환되고 첫해니까 많았을 텐데요. 그때 보면 자료집으로 나온 게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똑같이 공유를 해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 해 주십시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제가 웃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소위원회 활동에 대한 의미가 다 결과 중심적인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볼 때 ‘잘했다.’, ‘못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자료집이 있으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사무처의 입장은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고요. 다만 자료를 위원님들이 참고할 수 있는 것. 기존의 자료에서 일부 오픈할 수 있는 공개 자료면 워크숍 때 준비를 해 주세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알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가요?

**진솔 위원** : 그리고 워크숍 전에 아이디어나 안건을 미리 드리는 게 좋을지? 아니면 워크숍 때 드리는 게 좋을지? 미리 드리는 게?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예.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그것도 이렇게 정하시죠. 일정을 예측했으니까, 이따가 날짜도 확정할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기간 동안 우리 정창호 팀장의 일이 좀 많아지기는 하겠지만 사전에 의견을 주시는 내용도 취합을 하고요. 그것에 따른 부대 의견이 있으면 취합해서 정식 회의자료에 국한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준비해 주면 됩니다.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저희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가 의견을 적으실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고 다른 의견을 더 주십시오.

**서영수 위원** : 지금 자료에 보면 경영전략소위원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8기에서도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기금에 대한 대응이나 재원 마련 관련해서 이 소위원회를 운영하면 현실적으로 실제 효과를 낼 수 있나요?

**정창호 기획조정팀장** : 이 소위원회를 운영했을 때 기금의 결과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변화가 있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속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도 공임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국회에서 세미나를 한다거나 뭔가 외부 인사를 포함해서 신문에 보도자료를 낸다거나 자체적 세미나를 하는 노력들은 계속해서 외부에 나가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가장 좋은 것은 그것과 더불어서 국회의원님들이 입법 발의를 하는 방식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실 쪽에서 기금 확충을 위해서 3가지 입법 발의를 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어느 정도 의미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보완을 하면 그 부분은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또 우리 위원회에서도 정말 정점에 달했는데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문제. 올해 연말까지 집행을 마치면 약 300억도 안 되는 상태의 고갈에 직면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당장 현안이 되고요. 그런 과정에서 문체부든 국회든 기획예산처든 공론화가 안 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서로 공감하고 있는 오래된 내용이고 10년 이상을 거의 20년 가까이 된 문제라서 알지만 공론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위원회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진행을 하거나 준비를 하는 방식. 기존에 김재원 의원 중심으로 입법 발의는 되었다고 하지만 지금 새로운 위원회 구성과 함께 진행이 되다 보면 경영전략이든 예산 전담이든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집중하는 소위원회도 필요할 수 있겠다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대통령님도 문화강국 정책에 대한 부분에서 늘 질의를 하는 사항이라서요. 문체부도 그렇고 우리는 더 더욱 그렇고요. 그러나 우리의 준비가 필요한데요. 현재 답답하니까 복권기금에서 일반기금 형태로 일정한 액수 이상이 나오는 %의 문화예술진흥기금화 방법. 그 다음에 스포츠포토처럼 문화예술복권을 제정하는 문제. 그리고 기존 주류세, 담배세에서 아직까지 문예진흥기금으로 공식화된 %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예술인이 주류세, 담배세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일등공신입니다. 그렇다면 문예진흥기금이 주류세와 담배세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냐? 그래서 세원에 대한 것도 연구를 좀 해야 되는데요. 일부 전문가들에게 개별 자문은 받지만 우리 소위원회에서 이런 준비까지 단단하게 하고 국회도 유력 의원님이 입법제안을 해야죠. 현재라면 집권당의 문화예술에 소속되어 있는, 상임위가 7월부터 국회도 새로 구성되니까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 소위원회에서는 문예진흥기금을 위한 전문적인 준비도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워크숍 때 결정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민을 하면 좋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 정도로 심각하고 중요하고 시급한 사항이면 소위원회보다 우리 예술위 안에서 위원장님 직속으로 TF를 만들어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충원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이범헌 위원장 :** 그 방법도 고민 중입니다. 그래서 그때 논의를 하면서 위원님들과 중지를 모아서 위원장 직속으로 하라고 하면 그렇게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제 개인 소견 같아서는 제가 막 나서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문예진흥기금이라는 특수성이요.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제가 직접 맡아서 가는 부분도 의결을 해 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짧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수 위원님의 말씀에 저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경영전략소위에서 국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했을 때 김승수 의원실하고 했고 올해 초에는 조국혁신당의 김재원 의원실과 했는데요. 과거에도 복권기금이나 토토기금이 문예기금으로 전용된 바가 있고 얼마 전에 김재원 의원실에서는 부가세를 문예기금에 전용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은 현장에서도 회의적이라는 반응이 많았고요. 위원장님이 기여는 하고 계시지만 담배세, 주류세가 적용되기는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처럼 연말이 되면 300억밖에 안 남았다고 그러면 5,000억에서 300억밖에 안 남는 상황이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존립 근간이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위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8기 때 우리 위원장님이 정치권에서 오셨고 5선 국회의원에 장관까지 하셔서, 문예기금은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굉장히 위기인 것 같아서 전략적 TF를 통해서 여당 문체위가 구성되면 이 문제가 시급하게 우선순위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이고요. 하여튼 그런 기조로 최선으로 대비를 하고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항목들은 사실 정말 답답하니까 나오는 부분이지만 이 세원도 틈새를 잘 찾아내

면 세원 중에서 문예진흥기금화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은가 본데 이 세원이라는 것은 기존에 너무 완벽하게 짜여있어서 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죽하면 문체부 장관님과 간담회를 할 때 “문화복권이라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스포츠에서는 스포츠평화도 있으니까 일리가 있다.”라고 넘어갔는데 그 정도로 답답한 부분입니다. 문체부도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제일 고민을 해서 제안을 줘야 하니까 철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도 최우선순위 중에 하나로 이것을 꼽아놓고 있습니다.

**서영수 위원 :**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 드리는 질문인데요. 지금 위원회 구성이 장르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르별로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들 중에서 각 장르별로 소위원회를 만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연극도 생각이 있으신거죠?

**문삼화 위원 :** 저는 제가 추진하고 싶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있는데요. 그게 어떤 소위원회와 매칭될 것인지는 워크숍 때 가서 보려고요.

**서영수 위원 :** 현재 장르별 구성이기 때문에 장르별로 현장과 소통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예술위 사무처에서 사업을 통해 현장소통을 하는 것과는 다른 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가 예를 들어 문체부나 국회 등 대외적으로 힘을 가지려고 하면 현장의 힘을 수반하지 않으면 사실 힘 있게 밀고 나가기가 힘듭니다. 기금문제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서 현장의 동력을 우리 사업에 당겨와서 같이 으쌰으쌰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 소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소위원회가 그냥 기능별로 전문가를 몇 명 뽑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현장의 역량이나 현장의 세력을 예술위 사업에 같이 얹어서 국회에 가서 필요하면 시위도 하는 조직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생각을 물어보는 겁니다. 장르별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아니면 공연예술장르 또는 시각예술장르로 묶어서 전체 생태계 관련한 구성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맞습니다. 그 부분도 함께 의제로 염두에 두시고 워크숍을 통해서 조금 더 섬세한 논의를 하고 방향을 잡도록 하고요. 실질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공공기관화 돼서 지원기구로 있지만 지원받는 대상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우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조심스럽다 보니까 오히려 지원을 받는 대상들로부터 적을 만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원을 못 받는 분이 더 많으니까요. 이 기회에 그런 관계도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것.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한번 더 고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반응도 같지만 실제로 위원장 직속기구로 문예진흥기금 조성을 위한 팀을 꾸리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인 결정이 되면, 기존에도 우리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일부 들어오는 게 경정·경륜 기금이 들어오는데요. 이 부분은 기존 유형에 사행산업의 수익금에서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열악하고 적은 액수입니다. 그래서 연간 100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게 복권기금 그리고 체육기금에서는 다 규정되어 있으니까 로또복권, 스포츠복권이 다 기금화 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체육기금을 자꾸 빼앗아 쓰는 격이 되니까 계속 과부화가 되고 문체부로서도 한계가 오는데요. 강원랜드 수익금 구조도 배분화 조례는 다 결정되어 있지만 이런 틈새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여러 방식을 논의해야 되니까 가벼운 문제 같지만 좋은 아이디어를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게 되겠어?”라고 하지 말고 가벼운 아이디어가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허심탄회하게 있는 그대로 제안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진행 의견이 없으면 이 내용에 대한 보고자료 접수를 해도 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접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두 번째 보고안은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및 운영 방향에 대한 안을 김지영 지원총괄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예.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및 운영 방향(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저희가 연례적으로 9월 말에 예정되어 있는 공모사업 접수를 앞두고 공모제도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 시작을 위한 안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에 있는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해 주시는 내용을 바탕으로 7월과 8월에 거쳐서 각 사업팀과 조금 더 세부적인 논의를 진행하시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자료 2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20페이지 심의위원 후보단 운영 경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심의위원 후보단이라고 부르는 심의위원 풀은 2015년부터 저희가 구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연간 계속 접수를 받아서 2022년까지 약 2,000여 명 누적 관리를 해 왔습니다. 2023년도에 비상임위원님들 제안으로 지원심의제도개선 TF를 운영했고 해당 과정에서 후보단을 전면 재구성 하는 것으로 의사결정이 돼서 지금 제로베이스에서 공개 접수를 받아서 전체 1,983명 중에 666명으로 그 인원을 축소해서 확정했습니다. 당시 분야별 예비선정위원회를 거쳐서 전수검토를 받았고요. 그리고 당시에 3년 임기제라고 기존에 없었던 임기제를 의결 받아서 올해 10월 16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예비선정위원회의 검토를 거치고 사무처 행정검토 그리고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을 통해서 예술인권 리보장법에 기재되어 있는 권리침해 행위 해당자가 있었는지까지 검증을 받았습니다. 2023년도에 666명으로 확정된 이후 2024년 정시공모 심의를 진행한 이후 비상임위원님들과 사무처 안에서 666명은 다소 심의를 운영하기에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일부 분야만 충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아서 위원님들과 사무처의 협의를 통해 적격자 추천 방식으로 최종 34명을 충원해서 현재 700명으로 심의위원 후보단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 시각예술분야 한 분께서 작고하신 것을 확인해서 확실한 인원은 699명입니다.

다만, 올해 심의위원 후보단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전면적으로 개편 방안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위원님들과 심의제도 설명 그리고 미진했던 과제에 대해서 논의를 통해서 21페이지 후보단 운영 방향(안)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사실 사무처에서 여러 가지 문제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바탕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중장기과제는 조금 더 거시적이었지만 위원님들과 논의를 통해서 충원 자체는 미시적인 문제고 저희가 앞으로 지원제도, 심의제도를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거시적인 논의가 진행된 후에 심의위원 후보단 인력을 몇 명으로 구성하느냐는 후속으로 따라올 문제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의 1번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심의위원 후보단 699명을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인력 풀을 다시 재구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명단에서 심의위원 모니터링 결과를 환류한 다거나 저희 지원심의운영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자격 불충족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면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임기를 1년 정도 연장하는 것으로 제안을 드립니다. 임기를 1년 연장하고 위원님들과 저희가

2027년도 심의운영을 한번 해 본 다음에 여러 가지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한 다음 운영방향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적용하는 것은 내년에 검토하면 어떨까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임기가 1년 연장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지금 위원님들께 사전에 명단 구성 등 요청을 드렸을 때 아무래도 인원이 부족하다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부 분야 충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재검토 요청을 7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가 9월 말로 예정되어 있는 공모사업 발표까지 약 2~3개월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심의위원 후보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심의제도 그리고 지원제도 전반에 대한 장르별 검토회의 운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제도개선 과제도 발굴하고 단순히 2027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지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각 장르별로 어떻게 진행하면 좋을지? 세부 충원분야 그리고 규모 등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취합해서 7월 말 후보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존 사무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제 문학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령층이 다소 높기 때문에 젊은 분야 심의위원 그리고 저희가 사업 지원분야가 확대됨으로써 한국문학의 세계화와 관련해서 여러 기획이라든가 해외 진출 관련해서 보실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시각예술 분야는 저희가 건축물 미술품 제도 관련해서 문체부와 계속 긴밀하게 논의해서 지역재단에서 각각 심사하고 있는 공공미술품에 대한 심사를 저희 기관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미 지금 지역재단에 저희 기관 인력 풀을 제공하고 있고요. 시각예술 분야가 전체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인력이 제일 적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뮤지컬 분야 같은 경우에는 연극 분야와 통합해서 운영되고 있고 연극 분야 인력이 굉장히 많은데 비해 지금 뮤지컬 분야 후보단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현장에서 활동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당해 연도 지원신청을 하신 경우 저희가 섭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조금 더 충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뮤지컬 분야는 분야를 연극과 분리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연예술 분야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 문예기금사업이 아무래도 공연예술 분야의 예산 규모나 사업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획, 제작 그리고 국제교류 관련 전문가는 계속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원예술 관련해서는 지금 저희가 비상임위원님도 안 계시고 다원예술 분야가 별도의 장르로 심의위원 후보단에서 관리되지 않고 문화일반 분야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심의위원회는 별도의 장르로 저희가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들 때문에 문화일반 분야에서 분리해서 별도의 독립 분야로 세부 분야를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사무처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위원님들 의견까지 다 포함해서 최종 명단에 대한 구성은 7월 말에 의결 받고 8월에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최종 명단은 8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안을 짜봤고요. 이후 제도개선 변화라든가 신규사업 그리고 변경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연례적으로 진행하는 일정에 따르면 못해도 8월 말이나 9월 초에는 변경사항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공청회나 전면적인 간담회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타 논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지금 저희가 심의위원 후보자 추천을 보통 각 장르별 위원님께서 해 주시는데 지금 문화일반 같은 경우에는 구문모 위원님께서 한 분이기 때문에 구문모 위원님께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다만, 다원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도 위원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 간 논의를 통해서 어떤 한 분을 정해 주시거나 위원장님께 위임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원예술 분야를 어떤 분께서 맡아서 사무처와 논의를 해주시면 좋을지도 함께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연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들께서 각 장르별로 두 분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심의위원회 섭외 후보자 구성 방식이 위원과 사무처가 추천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각 사업별로 두 분의 위원님께 인원을 할당해서 추천을 받을지? 현재는 사무처와 위원이 1에서 1.5

배수로 추천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것을 규정개정 변경을 통해서 위원 2인이 다 추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 혹은 위원별로 창작산실, 창작주체로 담당사업을 정해서 추천하는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함께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종합해서 7월 말에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월 중에 신임 위원님들 오리엔테이션 때 심의제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아서 보충 설명을 위해서 직접 뵙고 안내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께서 기존에 생각하시던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간략하게 뒤편에 정리를 했는데요. 아무래도 압축적으로 정리를 하다 보니 위원님들께서 더 많은 얘기를 해 주셨는데 다 담을 수 없어서 부족한 사항은 지금 이 회의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성 위원님께서도 기존 위원회 안에서 제안해 주셨던 의견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할 의견을 별도로 의견서를 주셨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보시면서 함께 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수고했습니다. 본 보고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과 토론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상연 위원 :** 방금 말씀해 주신 지난번 회의 내용에는 저희가 나눴던 하나가 빠져 있는 게 기억나서요.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할 때 심의위원을 위촉하는 분야별 기준이 그때 저희 회의자료에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창작산실 같은 경우 작곡 분야, 기획 분야, 제작 분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요. 이렇게 세분화를 시켜서 분야를 나누는 게 매우 구체성 있고 전문성 있는 심의가 될 수도 있지만 작품 전체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본인이 속한 분야에 특화된 시각에서 오히려 편협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작품들을 실제로 제작해 보고 이런 종합적인 경험이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하는 게 어떤가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삼화 위원 :** 여기도 지금 각 위원님들이 제안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어떤 것들이 수용될 수 있고 어떤 것들이 채택될 수 있나요? 저는 이렇게 의견만 수렴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의견이 수렴됐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당장 9월에 본격적으로 8월 말까지 심의위원을 위촉하거나 보완할 때 저희 위원님들이 낸 의견 중에서 어떤 것이 수용 가능한 것인지? 반영될 수 있는지는 위원장님이 결정하시는 건가요?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지금 위원님들 의견은 정말 앞서 김상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사무처에 말씀해 주신 의견을 다 담지는 않았고요. 오늘 위원님들 간 논의를 위한 참고자료고요. 사실 위원님들 간 어떻게 논의를 해서 합의에 도달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들 간 서로 오고가는 의견을 바탕으로 사무처에서 장르별 개별 협의를 하고요. 개별 협의 결과를 저희가 모아서 다음 달에 의결로 올릴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 합의가 안 되면 저희가 표결을 할 수도 있고 합의에 도달하면 그대로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이 부분은 이런 회의를 통해서만 진행하다 보면 한계가 있어서 담당 팀별로 사전에 해당 분야 위원님 혹은 전체 위원님들께 사전 보고사항 혹은 사전 업무설명을 수시로 하라는 방향을 잡고 지금 각 팀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결과로 취합을 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런 논의가 이런 회의를 통해서 하면 상당히 지연되는 부분이 있고 요소가 있어서요. 이 안을 기준으로 워크숍에서 다루면서 조금 더 압축하고 “이것만큼은 뺄 수가 없다.” 혹은 “이것만큼은 절충하고 조정하자.” 그러면 사무 간사로 참여하는 팀에서 정리 정돈을 하고요. 그것을 의제로 안건부의 하는 내용으로 확정하면 바로 안건 부의에 올리는 기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논의를 이번에 상호 인식을 더 교감하고 이 내용들에 대해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해 주시고요. 요약해서 워크숍 때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런 제도 혹은 개선, 보완은 이번 의제로 부의해서 결정되면 바로 시행하자는 것으로 압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취사

선택을 해서 이렇게 정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런 논의 압축을 통해서 의제로 만들고 의제를 통해서 의결을 하면 바로 개선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위원장님 말씀에 정말 동의를 하고요. 사실 심의제도라는 게 어떤 장르마다 특수한 상황이 있고 어떻게 보면 장르를 떠나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범위가 있잖아요, 가령 전담심의제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심의위원 자체가 자기 사업에 심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는 현장에서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들인데요. 이런 문제를 여기에서 논의하면 어려울 것으로 생각하고요. 워크숍 때 별도의 안건으로 해서, 심의제도를 한번 건드리게 되면 앞으로 3년의 사업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 심의위원 후보단 구성 보고안건에 대한 절차상 문제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9기 신규 위원님들은 별도로 설명을 하고 의견수렴을 하신 것 같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를 하겠습니까만, 류재수 본부장님으로부터 그럴만한 사정이 있고요. 지금도 좀 힘이 듭니다만, 25일 오후에 설명을 들었고 그날 밤을 새워 새벽 4시경에 제 의견을 보냈습니다. 전체회의 자료집에 담겨서 위원님들이 공유가 될 수 있게 해 달라고 했는데 별첨으로 어제 왔는데요. 전체회의 자료에 극작가 협회 등은 있는데 별첨으로 하더라도 이 자료집에는 성기숙 위원이 자료를 냈다는 표시 정도는 있어야 자료집이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요. 한 줄이라도 이 자료집에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러면 전체 자료집에 의견을 냈다는 게 있고 기록으로 남는 것인데 저는 조금 절차상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저는 위원이었고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심의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아까 전담심의제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만,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강점과 약점. 이것이 사무처에서 보는 관점과 이해도와 시각과 저는 민간자율 위원으로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렸으면, 같이 했으면 의견을 내신 것 중에 걸러질 수도 있고 여기에서 업그레이드가 된 의견도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김대현 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은 장르별 특성이 있어서 맞춤형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 같은 생각이 있으면서 동시에 통합적으로 봐야 할 게 뭐냐 하면, 문화예술의 제도 정책도 그렇고 현장의 트렌드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지방, 굉장히 중요하고요. 청년도 중요하고 저작권 문제나 AI문제는 심의위원 후보단을 할 때 장르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감안이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장르로 와서 8기 때 특이사항이 있었어요. 전통예술 위원님들이 계신데 전통예술은 충원이 1명도 안 되었습니다. 그때 창작소위원회에서 충원 문제가 논의되었는데 그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예술은 2024년에 국악진흥법이 제정돼서 국악진흥법에도 전통음악, 전통연희 등 악가무가 다 포함되는 국악진흥법. 이게 바로 문예위에서 하는 전통예술에서 포괄하고 있는데요. 이때 전통무용이 전통예술 분야의 후보단에도 있었거든요. 어떤 분을 무용으로 토스하셨어요. 그래서 무용으로 들어왔는데 현장에서 얘기는 뭐냐 하면, 전통무용이 무용 쪽에 신청해야 할지? 전통예술 쪽에 지원을 해야 할지? 예를 들면 탈춤도 전통연희면서 연극이면서 무용인데요. 기존에는 전통예술로 묶여 있어서 그쪽으로 지원을 했는데 “애매하다.”, “오갈 데가 없다.” 그래서 이런 애로사항과 불만들이 있어서 앞으로 심의단 후보를 충원할 때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전통예술 분야 위원님들과 우리 무용 분야가 논의할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입 비상임위원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과 전체 9기 위원님들에 대한 의견수렴을 병행해서 진행

해 주시고요. 늘 의견수렴에는 동일한 9기 위원으로서의 방향을 잡아 주시고 보완해 주시고요. 별첨자료지만 앞으로는 회의록에 그런 것들도 조금 더 구체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의견주신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반영하면서 정리를 하고 그것을 최종적으로 결의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도록, 회의를 통해서 조금 더 압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런 부분들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워크숍 때 더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장르별 위원이 두 분이 계신 곳도 있고 한 분이 있는 곳도 있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2명이 꼭 있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1명으로 커버할 수 있는데 문제는 장르 형평성을 보면 두 분으로 통일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있어서 그 얘기도 함께 검토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른 세부적인 장르별 논의사항은 각 장르별 팀과 진행해 주셔도 되는데요. 하단에 앞으로 심의제도 관련해서 다원예술 분야는 어느 위원님께서 해 주시면 좋을지에 대한 사항만 오늘 의사결정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다원예술에 한정해서요. 혹시 이것은 업무상 필요하고 행정진행상 필요한 사항이니까 다원예술 부분의 방향을 정해주시고 추천을 해 주셔도 됩니다. 혹은 관심이 있으신 위원님은 직접 자문을 해 주셔도 좋고요. 의견을 한번 주십시오.

**김대현 위원** : 아까 점심때도 저희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다원예술 자체는 어느 분야의 범주에 속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생각하면 각자 전문이 아닌 분야라서 1명의 위원에게 역할을 맡기기 보다는 위원회 전체가 추천을 한 다음에 협의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절차상이나 내용상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범현 위원장** : 그러면 지금 담당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타임스케줄이 지연되었을 때 업무상 애로사항이 있나요?

**류재수 예술지원본부장** : 맞습니다. 심의를 진행해야 되고 시각다원예술팀에서 맡게 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는 과정이 생기기 때문에 이전에는 시각예술 쪽에서 약간 다원예술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들로 하거나 위원장님한테 위임을 하던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위원 한 분이 해주시는 게 집행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다원예술 분야의 진흥정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서 논의를 하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그러면 우선 한정 개념으로 다원예술 분야를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의결에 의해서 확정해 주시고요. 확정을 하되 일종의 시한부 개념으로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본질적인 게 독립 분야로 장르화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있어서요. 그것은 워크숍을 통해서 논의하고, 이어서 7월 정기회의를 통해서 의결안건까지 가게 되면 조금 더 논의를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장르 독립 부분은 그때 논의하고 오늘은 추천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문삼화 위원** : 다원 부분 심사위원을 추천하는 거죠?

**김지영 지원총괄팀장** : 다원예술 분야에 대해서 사업도 좀 들여다보셔야 되고 심의위원 구성 방안까지 7월에 저희가 의결로 올릴 사항에 대한 논의를 같이 해 주셔야 됩니다.

**문삼화 위원** : 제가 하겠습니다.

**김대현 위원** :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 한 분께서 추천하시는 건 좋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머지 위원들이 한 번 정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두 추천할 수는 없다고 하시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원이라는 각자 네트워킹이 있을 수가 있고 어느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는 것을 서로 보면서 알 수가 있는 방향이니까 사후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면 이것은 어떠세요? 지금 문삼화 위원님께서 관련 분야를 좀 알아야 되니까요. 그런 기준으로 문삼화 위원님과 김대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기존에는 시각다원에서 이것을 묶어서 했다면 시각예술로 한정하고 두 분께서 협의를 해서 심의관을 추천해 주시는 방법으로 위원님들의 이견이 없으면 하시고요. 의견 서치는 그 다음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어떠세요?

**문삼화 위원** : 저는 좋습니다.

**김대현 위원** : 다원이라는 부분은 모든 위원들이 검토해야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래서 포괄성도 조금 인식해 주시고요. 그런 분이 추천하면 좋으니까 두 분이 협의해서 해주시면 그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서 보면 되니까요.

**성기숙 위원** : 두 분이 협의해서 하는 것은 좋고요. 장르 위원들이 “이 분은 적임자다.”, “이 분이 꼭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두 분께 추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그렇게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님과 김대현 위원님을 다원예술의 위원 역할로 심의관 추천을 하실 수 있게 권한 부여를 합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이것은 이것으로 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더 있으신 위원님이 계신가요?

(「없습니다.」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더 이상 내용이 없으시면 충분히 논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두 번째 안건에 대해서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마지막 보고안건은 2026년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내역에 사전보고에 대해서 조용주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잠깐, 아니면 이것까지 마치고 폐회 선언을 한 뒤에 저희가 의논할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워크숍 일정을 확정하는 문제. 그리고 저희가 지금 사무처장 공모는 들어갔습니다. 진행 중에 있고

약 보름간 공모를 거쳐서 마감이 되면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추천심사 위원님도 우리 위원님 3인과 자체 호선을 통해서 서영수 위원님께서 위원장을 맡게 되었고요. 당연히 문체부 국장 그리고 노동조합의 추천으로 해서 5인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연되고 늦어지는 공석이 상임감사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산회를 한 뒤에 충분히 의논을 하고요. 새로 준비하기 위한 추천심사위원 3인을 추천하고요. 사무처장 공모 방식과 함께 5인을 두려고 합니다. 그런 의논을 하려면 보고안건 처리를 다 해놓고 5분간 휴식하고 이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세 번째 보고안건인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 내역에 대한 사전 보고에 대해서 조용주 공연예술팀장이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다.

####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 관련한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2027년도 공모 준비에 앞서 사전 논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청취하여 7월 전체회의 의결안건으로 다시 부의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26페이지에 사업내용이 있고요. 개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대한민국 대표 기초 공연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우수공연예술 발표기회를 제공하여 공연예술 기반 구축 및 국민 향유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지원규모는 최소 5,000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85억 원 가량 현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현황은 현재 44개 단체로 연극 15개, 무용 13개, 음악 10개, 전통 6개 등 44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해당 세부 리스트는 29쪽에 별첨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지정교부방식에 대한 경과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 2019년까지는 대체적으로 공연예술 분야 주요 대표 행사에 대해서 지정, 지정이라고 하면 국회나 예산 당국에서 사업에 대해 별도로 사업과 예산을 지정해서 내려오는 형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일반공모와 병행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에 기재부의 방침으로 지정지원을 폐지하고 일반공모로 전환을 하였고요. 이 시기에 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인 논의를 통해서 안정적 사업 수행을 위해 다년지원 제도를 도입하였고 일부 사업을 다년지원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료 하단의 표에 나와 있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 대한민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3개 행사에 대해서 3개년 지정교부를 하는 것에 대해 2023년 9월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3년 동안 지정된 기한이 올해 2026년으로 만료되기 때문에 올해 공모전에 재의결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이 보고안건을 올렸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술위 지정교부의 결정의 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3개 축제에 대해 과거 몇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지정교부로 의결한바 있고요. 지정 배경은 간략하게 예술위 창설 또는 주최, 운영주체 대체 불가, 지자체 매칭 등 준비기간 필요 등의 사유로 의결을 통해 지정교부 결정하였고요. 이것에 대한 상세내역은 자료 31쪽에 있습니다. 31쪽 자료는 과거 지정교부 의결안건 자료고요. 지정교부 사유 및 필요성 부분에 상술되어 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으로 전국연극제와 전국무용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시절 각 장르를 대표하는 협회와 공동으로 사업을 창설하고 주최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운영조직이 과거 한국공연예술센터로 2010년에 편입되었고 그 한국공연예술센터가 2014년 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우리 기관 주최 사업으로 운영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 전후로 이러한 행사들의 민간 이양 또는 문체부 산하기관 간 역할 분담 정책에 따라 각 장르 대표 협회 및 예술경영지원센터로 이관하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 운영을 위해 2019년까지는 지정교부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들은 주관단체의 대체 불가한 측면이 있습니다. 전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 무대까지 올라가는 전국 규모의 사업 운영이 필요한 규모를 가진 기관 단체가 운영해야 하는 특성이 있고요. 지자체 매칭 기간 확보나 준비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타 축제와 다른 운영상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시 자료 27쪽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정교부 여부와 관련한 예상 이슈로는 지정 시에는 특정 행사에 대한 예외적 지원으로 인한 일반 공모 사업과의 형평성 또는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지정 시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주도로 시작되어 역사성을 가진 대표 공연예술제가 일반 공모로 전환될 경우, 장기간의 사전 기획과 전국·국제 단위의 운영 체계 유지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표성과 규모를 고려할 때 일반공모로 경쟁했을 경우에 실효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 검토사항으로는 서울국제공연예술제는 장르 대표 축제와 달리 문체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일반회계로의 전환이 적합하다고 판단은 하고 있으나 예산 당국과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일단체·실질적 동일단체 다중지원 불가의 건입니다.

사업 내 동일단체에 대한 다중지원이 존재하는 형태의 사업입니다.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다른 기금 지원사업과는 다르게 그런 상황에 놓여 있고요. 그래서 동일단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가 같은 단체를 얘기하고요. 실질적 동일단체는 별도의 개념을 갖고 온 건데요. 대표자, 사업자등록 번호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 주최·주관을 같이 하는 등 동일단체로 추정·판단할 수 있는 사업을 실질적 동일단체로 했습니다.

아래 표에 현재 다중지원 현황에 대해서 표로 정리해 놓았고요. 각 장르 주관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은 대한민국 대표 공연행사를 지원하는 사업목적과 취지에 따라서 당초에 문예기금 다중지원 예외사업으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사업을 진행했구요. 장르별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여부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여 각 2건의 사업수행이 가능한 형태로 현재 수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한 개선방침으로 동일단체 다중지원 불가에 대한 방침을 가지고 아래 사업 공고문 내 사전 예고라는 형태로 내용을 넣어서 사전 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사업 내 동일단체 중복지원 불가에 대한 내용을 넣었고요. 그리고 실질적 동일단체 중복선정 불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또한 축제의 성격이 아닌 개인 기량을 심사·평가하는 콩쿠르 성 행사에 대한 것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지원이 불가할 수 있다고 나간 바가 있고요. 다만, 의견 수렴을 통해 반영될 예정으로 단서를 달아서 공지된 바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한 주요 이슈로는 예술위 지정교부 사업의 다중지원 예외 적용 여부가 있습니다. 지정교부를 한다고 하더라도 다중지원에 예외로 둘 것이냐? 지금까지는 예외로 두었는데요. 둘 것이냐에 대한 부분도 아래 내용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한국연극협회 같은 경우 대한민국연극제를 지정하게 되면 ‘푸른·늘푸른 연극제’가 이 내용에 해당되고요. 대한무용협회의 경우 ‘전국무용제’를 지정하게 되면 ‘대한민국무용대상’ 사업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주요 이슈2번은 실질적 동일단체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실질적 동일단체의 경우 실질적으로 법적 행정적 요건은 별개의 단체지만 운영상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실질적 동일단체로 볼 수가 있다는 조건인데요. 다만, 대표자 및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별도의 법적 주체를 실질적 동일단체로 판단하는 것은 법적·행정적 쟁점이 있는 사안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주최·주관 관계를 넘어서 조직·인력·재정 운영 및 의사결정 구조 등에 대한 객관적 판단기준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 같고요. 아울러 특정 사업에 한정된 기준 적용은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기관 전체 지원사업에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또 그런 타당성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또한 3년 전에 이 사안에 대해 의결할 당시에는 3건에 대해서 별도의 행사계획을 판단할 자료가 부재한 상태에서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는 사전에 3개 행사에 대한 향후 3개년 사업계획을 요청해서 별첨자료로 배부해 드린 상황입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경우 서면으로 개선의견이나 보완의견을 주신다면 해당 단체에 전달해서 7월 의결 전까지 내용을 적용 반영해서 의결사항으로 올릴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수고 많았습니다. 본 보고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이나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하신 내용에 따라서 갖고 계신 의견이나 보완해야 할 의견이 있으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릴 때 무거운 마음입니다. 연극도 일부 있습니다만 주로 무용과 관련된 내용이고 굉장히 이슈화가 됐던 것들이고 결정을 신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4쪽짜리 의견서에도 냈습니다만 각 장르가 갖고 있는 환경과 생태계가 다르기 때문에 장르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 이게 각 장르별로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제 느낌으로 8기 때는 그런 것이 없이 장르 위원의 의견이 많은 부분 무시되거나 패싱되고 결정된 사안이 많이 있었다고 느껴지는데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올해가 2년째입니다. 현장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순수예술 지원기구인데 과연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개최해야 되냐?” 축제를, 행사를 주최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에 대한 회의감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지난 8기 때 아마도 위원장께서 무용 관련 협회 장님들한테 통합으로 해서 대한민국대축제라고 해서 5개가 묶어서 5억을 신청했던 겁니다. 그것은 역사가 없죠. 원년이었죠. 최초 지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 문제가 있어서 지원은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대한민국공연예술제를 위원회가 계속 가져갈 것인지? 이걸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작년 창설 때는 우리 위원회 내에 예술 장르 위원들이 들어간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당해 연도의 컨셉도 잡고 행사의 방향성이 논의되었는데 올해는 아마 생략을 하고 사무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무처에서 이것을 운영하려면 사무처 운영비라든가 홍보비, 인건비들이 있는데 이것을 현장예술인들한테 더 지원하는 게 옳은 게 아니냐는 현장의 이야기도 있다는 것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극이 15개, 무용 13개인데 개최 시기도 상당히 예민한 게 뭐냐 하면, 무용 같은 경우 9월, 8월. 물론 상반기 때 하는 것도 일부 있습니다만 협회들이 하는 행사들은 8월과 9월에 집중되어 있는데 입시를 앞두고 이루어지고 있고요. 여기에 명기된 협회 주최로 하는 행사들의 경우에는 대학생들이 참여를 합니다. 10분짜리 작품을 릴레이로, 쉽게 말하면 대학생 학예회 성격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대학생, 예고생, 대학강사, 교수들이 입시 전에 다 모이는 그런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과연 지원하는 것이 옳은가? 10분짜리 작품을 릴레이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들이 다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신중히 생각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전국무용제. 27쪽을 보면 무용 관련해서 현대무용협회가 MODAFE가 있고 생생춤페스티벌 등 2개가 동일단체 다중지원으로 잡혔는데요. MODAFE는 지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은 세계현대무용축제이기 때문이에요. 예전보다는 조금 존재감이 약화되었지만 그래도 세계 유수의 단체와 국내단체가 하고 있는 거라서 지속지원의 필요성은 있지만 생생춤페스티벌은 정말 제고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한다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지원했을 때 성과와 가치 측면에서 한다고 하면 저는 MODAFE. 역사와 전통도 있어서 이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한무용협회가 사실은 젊은안무자창작공연운영위원회로 되어 있지만 전국무용제, 대한민국무용대상, 젊은안무자창작공연. 이 3가지가 모두 대한무용협회로 주최가 되는 겁니다. 젊은안무자창작공연은

영위원회지만 이 부분은 제가 위원이 되고 나서 2024년에 ○○운영위원회, ○○조직위원회.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협회가 하는 사업인데 별도의 조직위원회, 운영위원회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카운트를 할 때 중복다중지원으로 잡히니까 이런 것들을 현실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그 당시 담당 팀장님께서 감안하겠다는 취지로 말씀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는 아까 조용주 팀장님도 말씀이 있었는데 탄생의 기원을 보면 1992년 이어령 장관님 때였는데요. 문체부에서 예술 각 장르로 ‘○○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1992년에 춤의 해가 지정되었고 이것은 문체부에서 춤의 해를 기념해서 전국무용제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취지는 선제적으로 굉장히 훌륭했다고 보는데요. 지역균형발전, 지역문화격차해소라고 해서 소외된 지역의 무용을 활성화 하자는 취지로 전국무용제가 만들어졌고 각 광역 15개 시도를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었고요. 이게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도 전국무용제를 정리하기를 “서울을 제외한 지역에서 개최되는 전국무용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작년에는 대전에서 개최되었는데 전담심의제 평가를 하기 위해서 제가 현장에 갔습니다. 폐막식 때 2026년은 서울에서 한다고 발표가 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서울에서 개최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전국무용제의 취지와 안 맞습니다. 서울에서 개최가 되는 것은 한 번도 없었고 전국 시도는 3번 정도 돌았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논의라든가 어떤 의결이 전혀 없었는데 올해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무용제가 우리 지정사업으로 6억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자체별로 다른데 10억이 지자체 예산으로 붙는 곳도 있고 지자체의 재정구조에 따라서 6억이 붙는 곳도 있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올해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무용계에서 일부가 서울시에 문의를 했습니다. “서울시 개최가 지역균형발전인데 가능하냐?”라고 했을 때 자기들은 지자체이기 때문에 중앙 문예위에서 해 줬기 때문에 한다는 말씀을 서울시 간부가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논의한 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걸 절차상 문제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최근 한두 달 전에 인천의 지역신문에서 2028년에는 전국무용제가 인천에서 개최한다고 해서 문예위가 6억, 인천광역시에서 9억 총 15억으로 2028년도 전국무용제 인천 개최라고 해서 경제 효과 액수까지 다 나와서 인천시의 담당국장께서 언론에 워딩까지 나왔어요. 이러면 전국무용제는 지정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공정의 가치를 생각할 때 문예위에서 이것을 지정할지 말지? 또 운영주체로 특정 협회가 할지 말지를..... 그러면 문예위에서 “2026년까지 지정사업으로 종료가 되니까 그때 가서 모든 것을 백지화 하고 다시 논의하면 됩니다.”라고 한 것이 3년째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논의조차 안 했고 오늘 처음 논의하잖아요. 그런데 어떤 프로세스로, 누구의 의사결정으로 인천시에서 2028년도에 전국무용제가 개최된다고 확정돼서 언론에 보도가 되었는지? 매우 이 과정이 의심스럽죠. 이런 것에 대해서 사무처에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제가 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의견에 대해서 간단한 팩트만 가지고 답변사항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제가 몇 가지 확인사항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무용제 서울 개최 관련해서는 확인한 바 2026년 개최지는 당초 2025년에 전북, 군산, 울산, 인천 등과 협의 중에 있던 상황에서, 아시겠지만 민생지원금 관련한 상황으로 정부에서 각 지방의 재정부담을 요청하는 겹치는 바람에 그런 논의들이 일거에 무산돼서 개최지를 긴급하게 다시 찾던 중에 그나마 재정 여력이 있는 서울시 쪽과 협의가 돼서 불가피하게 진행한 것으로 밝혀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연극제의 경우 상황은 다르고 사안도 다르지만 2019년 서울 개최 이력이 거기도 유일하게 1번 있었던 것으로 확인은 됩니다.

그리고 전국무용제 2028년 인천 개최지 확정 관련해서 지난 전차 회의 때 말씀해 주셔서 이것도 협회를 통해서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을 때 무용협회 인천지회와 인천시가 협의를 통해서 개최지가 선정되

있고요.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들을 저희가 확인해 봤을 때 위원회가 6억을 교부한다는 확정적인 내용은 들어있지 않았고요. 붙임자료에 있는 인천시에서 제출한 자료에서도 ‘교부 미정’이라는 표현은 들어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워낙 오래 지원을 해준 축제고 규모가 있는 축제다 보니까 위원회와 관련성이 높다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 사항이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셨던 대한민국공연예술제와 관련해서 성기숙 위원님께서서는 예술위원회가 주최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실제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민간경상보조라서 각 시행주체가 책임지고 하는 사업인데요. 작년과 올해 저희들이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홍보·마케팅 차원에서 봤을 때 이 부분을 국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는 예술위원회가 돈만 줄 것이 아니라 그러한 프로모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전제하에 개선했던 것이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상영할 때 “우리나라는 왜 에든버러나 아비뇽 같은 축제로 키우지 못할까?” 그러나 이 부분은 이해관계가 워낙 얹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에서 결론은 못 내렸지만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정리되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하고 있는 대한민국공연예술제는 각각의 주체들이 책임을 지고 하는 행사이고 여전히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행사지만 예술위원회가 프로모션 차원에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중장기계획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는 정책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위원회 역사에 있어서 1개의 단체와 협회는 다르게 봤습니다. 이유 자체가 뭐냐 하면 규모나 사이즈 그리고 영향력이 미치는 부분이 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1개의 단체가, 그게 개인이든 협회든 간에 많이 가져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보면 어떤 식이냐 하면 2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3건 이상 받아 가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원 심의를 하는 선정위원회에서 4~5건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3건 이상으로 올라오게 되면 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이건 4건으로 하자.”, “3건으로 하자.”, “1건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결정한 부분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건수와 상관없이 6억이나 8억, 7억으로 결정해 놓고 1차에서 이 부분에 대해 넘게 되면 2차에서는 위원회에서 하자고 했습니다.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술위원회가 지원하는 예술정책에 있어서 이 부분이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문화예술 발전에 미치는 영향들을 판단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봐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원래 대한민국연극제나 전국연극제는 초창기에 어떤 식이었느냐 하면, 지방이라는 말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은 좀 좁니다만 ‘지방’이라는 자체가 중앙, 지방이라고 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역’이라고 해서 나중에는 지역연극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부분이, 연극 같은 경우 뭐냐 하면 “서울도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대한민국으로 가자.”라고 해서 대한민국연극제를 하면서 이 부분은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지역 순회적으로 하면서도 대한민국연극제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연극제, 전국연극제, 대한민국연극제로 바뀌었고요. 무용 같은 경우에는 성기숙 위원님이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면 서울을 참여하게 할지? 그렇게 되면 또 하나의 문제는 “대한민국무용대상을 어떤 식으로 볼 것인가?”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 과정에서 봤으면 싶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한 당해 연도의 지원결정은 예술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예고제로 그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으니까 인천에 대해 저희들이 확약을 해 준 것은 아니었지만 협회 측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하면 재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행사를 함에 있어서 국제적인 행사든 우리나라 행사든 미리 중장기적으로 3년 전에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한 부분은 안정적으로 해야만 미리미리 구성해서 좋은 행사를 치룰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팩트체크만 드립니다.

**성기숙 위원 :** 설명을 또 드려야 되는데요. 아까 연극제를 말씀하셨는데 무용에서는 1979년도에 대한민국음악제가 생겼고 대한민국연극제가 생겼고요. 무용도 1979년에 대한민국무용제가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재 명칭이 바뀌어서 서울무용제로 역사와 전통을 지니고 있고 대한무용협회가 주최하고 있는 거죠. 여기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무용가들이 전부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국무용제는 명칭 그대로 1992년도에 ‘춤의해조직위원회’에서 주관을 했던 거죠. 춤의해조직위원회는 협회 중심이 아니라 민간 무용의 저명인사들이 여기에 같이 참여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전국무용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제외한 무용인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전국 지부에서 아마도 현재 예선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거주하는 무용인들은 참여가 어렵고요. 서울무용제라는 것은 전국 단위로 참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가 지역 활성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핫한 이슈화 되고 있는데요. 서울에서 전국무용제를 주최한다는 것은 현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역행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해법이 있느냐? 앞으로 논의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로 지정사업이 끝나는 게 무용 분야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위원장님도 개막식 때 참여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발레축제가 지정사업이 2025년도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모제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현장의 이야기가 “지정사업으로 하지 말고 공모제로 해 달라.” 그래서 문예위에서 공모제로 해서 작년에 심의를 통해 대한민국발레축제는 좋게 평가를 받아서 3,000만 원이 증액돼서 총 3억 9,000만 원으로 공모를 통해 올해 그 행사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무용제도 공모제로 돌려서 하라는 것이 무용계의 주장이 고요. 아니면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은 30년 전하고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무용인들이 참여하는 별도의 추진단이나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든지 아니면 아창제(아르코음악창작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사무실도 아르코 극장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창제 형식으로 한다가나 별도의 조직위원회를 꾸려서 한다면, 그리고 기왕 지역활성화니까 지역문화 재단이 있으니까 지역에 그 예산을 줘서, 지역 예산과 같이 매칭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문예위는 6억을 지원하지만 지역에서는 지자체별로 10억도 하고 15억도 하고 매칭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지역문화재단에서 주도를 하면 조금 더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의견까지 있습니다.

또 하나 지역에서는 어떤 불만이 있었느냐 하면, 지역 예산이 문예위 6억보다 2배, 3배 투입이 되는데 지역의 무용 발전을 위해서 어떤 성과와 어떤 의미가 있느냐고 했을 때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것을 결정하기보다는 향후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송시경 사무처장 :** 성기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향후 이 문제는 저희들이 직접 관여할 수는 없고요. 말하자면 주최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에서 예술위원회가 책임을 지고 하는 행사이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민간경상보조라고 되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일단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대한민국발레축제를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대한민국발레축제를 한 것이 아니고 예전에 국가에서 하던 부분을, 위원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역사적으로 거쳐 오면서 예술위하고 협회 위주로 해왔죠. 이 부분이 연극이나 무용만이 아니라 음악이나 국악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부의 정책 자체가 뭐냐 하면, “그걸 예술위가 왜 해? 지원만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해서 이 부분이 민간에게 넘어가는 역사적인 맥락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해 왔는데 방식에 있어서 당연히 지정해서 나갈 것이냐? 아니면 공모로 해서 나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기재부에서 한 때는 문체부에서 하면서 완전히 지정해서 심의 없이 나가는 부분이 있었고요. 예술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결정했던 부분으로 있다가 문체부에서 하지 않고 예술위원회로 다 넘기면서 한동안 문체부에서 했던 것처럼 어떤 것은 당연히 그냥 지원하고 어떤 것은 심의를 해서 하는 방식으로 왔다가, 그게 7대 3 정도로 더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기재부에서 다 공모를 하라는 식으로 해서

갔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7기 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예술위원회에서 태동해서 왔던 부분은, 좀 안정성 차원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안이 있었습니다. 공모방식으로 했을 때 지원은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주최를 못할 정도로 예산을 깎아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세계행사라고 하더라도 일부만 다시 돌린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발레축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런 기조 속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는 정책적으로 성기숙 위원님이 보셨듯이 이 부분이 예술위원회가 하는 전체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시·도에 주면 시·도에서 하는 행사로 그쳐버리고 전국적으로 못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회를 하는 것으로 하면서도 우리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로 정체성을 가져가야 되겠다는 부분으로 행사를 해 오고 있는데요. 방식이든 개선 등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사무처 입장에서 드리겠습니다.

**성기숙 위원 :** 7기 위원회 때 결정사항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대한민국발레축제는 올해가 16회인데요. 제가 초창기에 관여를 했습니다. 국립발레단 주관으로 공공에서 시작을 했다가 민간예술인들이 참여하는 조직위원회로 이관돼서 잘하고 있고 작년까지 문예위의 지원이었지만 종료가 돼서 공모를 했는데도 그 사업은 활성화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증액이 되었다는 말씀, 민간에서 해도 충분히 역량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7기 위원회 때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무용계의 사정하고는 매우 다릅니다. 대학 무용과 지방은 다 없어졌고 인구가 소멸되었습니다. 그런데 특정협회 같은 경우에는 4개, 5개. 서울시의 지원까지 합하면 7개에서 8개를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협회가 다중 중복지원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것이 무용계 생태계 양극화. 아까 라운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무용은 정부 지원의 의존도가 높기때문에 자본화되거나 자립할 수 있는 구조가 아직은 안 되기 때문에 정부 지원 의존이 높거든요. 그런데 창작 역량이 뛰어난 예술가들한테 지원해서 미래에 남는 좋은 작품을 생산해야 위원회는 지원하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협회에서 하는 것은 소비성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거기에서 작품이 남는 게 아니거든요. 10분짜리로 대학생이 주로 참여하는 행사가 많은데요. 이런 점에서 실질적 트렌드에 맞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7기 위원회를 말씀하시는데 작년에 부산에서 브니엘예고 희생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전부 현장의 예술, 정부의 지원과 연동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무용계의 여론이 중복 다중지원, 독점, 권력화가 되는 현상에 대한 여론이, 이 자리에서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요. 다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무용계의 여론과 상황은 기존과는 너무나 다르다. 공정의 가치를 우리 위원회에서 신뢰를 줘야 한다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결정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향후 다각적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문삼화 위원 :** 저도 할 말이 있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말씀해 주십시오. 요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삼화 위원 :** 최대한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용계의 현안이 심각해 보이네요. 성기숙 위원님께서 고민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쪽 분야의 일은 모르니까요. 연극계를 말씀드리자면 한국연극협회는, 속담에 그게 있죠. “굵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한국연극협회는 사실 굵은 나무입니다. 고시 패스를 한 애들은 다 대학로에 와 있고요. 연극계는 다른 메인 협회가 없어요. 한국연극협회 하나입니다. 연출가협회나 배우협회 등 직종별로 있지 장르별로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저는 지정사업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극계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연극제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지역 연극인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는 큰 동력입니다. 지역에서 전국 시도에서 예선이 이루어지고요. 7월에 본선으로 들어옵니다. 사실 지역 연극인들은 연극제가 굉장히 뭔가를 바라보는 목표점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대한민국연극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마 모두 서울로 짐을 싸서 올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전국 단위인데 중앙부처에서 든든하게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일단체 다중지원의 경우도 대한민국연극제 말고 지원하는 게 ‘푸른, 늘 푸른’이거든요. 이것은 생애주기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연극제 그다음에 원로연극제. 그래서 이것은 생애주기별로, 사실 저희는 지역생태계. 그리고 하나는 원로 선생님들과 청소년을 챙기는 거라서 동일단체 다중지원과 지정사업에 있어서, 지난번에 임영옥 위원님께서 굉장히 멋진 단어를 쓰셨는데 ‘기계적인 형평성’이라고 하셨죠. 기계적인 형평성을 여기에 해서는 안 된다. 공정하게 공모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건 너무 기계적인 형평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 잘 청취했습니다.

**차지언 위원 :** 저도 성기숙 위원님께서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깊이 생각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지방에서 무용을 시작하고 활동하고 있는 무용인이다 보니 전국무용제가 가진 상징성에 대해 더욱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국 무용제가 35주년이 되었는데요. 대학을 졸업하고 당시 지역에서 무용 활동하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단체가 한국무용협회였습니다. 대한 무용협회의 전 명칭입니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무용인들에게 무용협회가 주는 안도감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무용협회가 운영하는 전국무용제는 지역예선을 거쳐 그 지역의 안무가가 무용제를 통해 중앙무대로 진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무용제 운영의 특성을 살펴보면 한국무용, 발레, 현대무용을 아울러 이 세 개의 장르가 지역 예선을 거치고 본선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전국무용제 운영상 3개의 장르를 포괄하고 전국적으로 지회, 지부를 가지고 있는 운영 단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올해 35주년이기에 전국무용제가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예산 확보의 문제도 있지만 지역에서 활동하는 안무자들이 중앙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기 때문에 서울에서의 개최도 의미있다고 봅니다. 예전에는 서울 이외 소외된 지역의 발전 추구라고 했을지 몰라도 지금의 현실은 서울과 지역 무용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전국무용제가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국무용제의 상징성과 운영적 특성으로 볼 때, 대한무용협회에서 현재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성에 대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전국무용제가 5월경 예선을 거쳐 9월경 본선을 진행합니다. 지역에서 예선을 거쳐 본선에 진출하자면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여야 안무가들에게 지원을 할 수 있고 축제를 치릅니다. 지자체 예산은 전해년도에 책정되기에 이러한 운영의 특성상 단년의 계획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전해년도에 다음 해 운영지역을 선정해야 그 지역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고, 지역 안무가들이 지원금으로 안무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축제 운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공모를 하든, 다른 운영방법을 찾든가에 대해서는 더욱 장기적으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대한무용협회 인천지회에서 확보한 9억?이 되는 지원금을 확보했다는 것이 전국에서 활동하는 무용가들이 모이는 축제에서 굉장히 큰 힘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열린 생각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잘 알겠습니다. 추가 말씀이 있으세요?

**성기숙 위원 :** 예.

**이범헌 위원장 :** 아주 요약해 주세요. 이제 더 이상 추가 의견을 듣기는 어려우니까요.

**성기숙 위원 :**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국무용제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아닙니다. 보다 무용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는 것이고요. 절차상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가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없애자는 것이 아니고요. 그리고 대한민국무용대상도 여기에 포함되었는데요. 이

것도 작년에 보니까 최고의 예술 작품을 뽑는 것인데 여기에도 우리 문예위는 1억 2,000만 원을 지원했는데 천안시와 매칭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잡히지 않는데 천안시의 예산이 들어가서 대한민국 최고의 예술성 있는 작품을 공설운동장 가설무대에서 합니다. 밤에 10분짜리 작품을 하더라고요. 이것은 넌센스라고 보여지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부끄러운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당해 연도 최고를 뽑는데 공설운동장에서 밤에 가설무대에서 10분짜리로 한다. 그렇게 거기에서 뽑은 것을 문예위에서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도 운영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조용주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천시에서 문예위에서 6억을 지원한다는 특정한 문구가 없었다고 확인해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왜 언론에 나갔는지? 이것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대외적 신뢰도에 있어서 치명적인 피해를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최하는 협회와 인천시에 문예위 차원에서 유의를 요한다거나 문건으로 공문화 해서 발송하는 것에 대해서 검토해 주십시오.

**이범현 위원장 :**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의견 개진은 된 것 같고 더 이상 청취는 안 해도 되겠죠? 이 부분은 8기 위원회부터 많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미 9기 신임 위원님들도 사전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은 보고내용으로 접수를 받고요. 이 논의의 근본은 이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논의하는 게 아니라 구조적 문제인 것 같아요. 역사가 각 장르별로 대한민국의 국호를 따서 장르별 축제 형태의 문화공보부 시절부터 진행했던 내용이고요. 일부는 조선총독부 시절부터 했던 겁니다. 미술 같은 경우 대한민국미술대전이 있죠. 총독부에서 주최·주관을 다 했던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하니까 문공부가 탄생하고 문공부가 주최·주관을 해서 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대를 거쳐서 80년대에 들어서면서 문예진흥원에서 2005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이 되었어요. 이때까지는 문예진흥원에서 주최 관리를 하다가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 넘겼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최·주관을 하다가 이제 시대가 발전되고 전환되어졌으니까 민간전문기구의 대표적인 단체. 여기에서 민간전문기구라고 하면 한국예총을 말하는 겁니다. 한국예총은 1962년에 창립이 되었어요. 한국예총을 이루는 10개 협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대표하고 활동했던 분야들. 건축 협회를 포함한 10개 분야가 한국예총을 이루는데 이 10개 분야가 대한민국 국호를 써서 이런 유형의 행사를 하고 전문화하기 위해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각 대표단체, 협회에 이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장르의 협회가 그것을 이원 받아서 하고 할 때마다 말 그대로 국가가 운영하던 공공기관이 운영하던 민간전문단체가 운영을 하던 문제점이 늘 있으니까 보완을 한다고 늘 진화해 왔습니다.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전국무용제, 전국연극제 형태로 남아 있는데요. 이것이 긍정적 관점에서는 역사성을 간직하면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그 10개 장르로 다 있던 것이 폐지되거나 지원금이 모두 끊기고 독자적으로 운영합니다. 이런 구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한두 기수의 위원회에서 가부를 결정하면서 이것을 논의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도 공감해 주실 것으로 보고요. 성기숙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늘 제시해 주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해서 여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나 관점의 차이는 너무나 다양해서 위원님들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계시니까 내용적인, 행정처리상 접수를 하고, 이 논의는 근본적으로 논의를 한 번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되겠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은 우리 기수에서 해결이 안 되면 다음에도 똑같은 논의가 반복되어질 텐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세련된 방식의 논의. 그러니까 주최 당사자인 협회들 그리고 위원회가 함께 논의의 장을 준비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더 좋은 대안, 그렇게 되면 오히려 더 확장해서 지원과 규모도 더 키우면서 변형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논의를 생산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어떻다고 해서 없애고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내용이 아니신 겁니다. 그렇다면 위원회에서는 조금 더 생산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다중지원, 중복지원, 2개 이상의 지원을 넘어서었다는 것을 문제로 다룰 게 아니고 그런 가치 부여를 하고요. 그렇게 될 거라면 기존에 더 크게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안을 하면 더 크게 가고 그 분야에서 범 무용인들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 범 연극인들이 그것을 할 수도 있고요. 와해되었던 장르들도 다시 부활할 수도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성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80년대 후반에는 한국민족예술총연합회(민예총)가 창립돼서 여러 민속예술계열 장르가 함께 성장해 오고 오늘날에 이르는데 만약 그게 없었으면, 경쟁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 틀도 좋고요. 중요한 것은 같이 살아야 되겠다. 하다 보니까 어딘가가 낙후됩니다. 그리고 또 문화예술계는 어딘가는 잘 되고 어딘가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낙후됩니다. 특히 창작예술, 기초예술 분야는요. 그래서 이런 분야의 근본적인 것을 우리 9기 위원회가 조금 더 논의의 초점도 만들어 가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제제기가 된 것들과, 이게 또 타당한 긍정적 의견을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다 이해를 할 만한데 이런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은 무 자르듯 결론을 내는 그런 안전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총이 만들어질 때는 진보의 극좌, 민예총보다 훨씬 더 극좌의 문화예술단체와 극보수의 문화예술단체를 물리적으로 통합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시키고 통합시키는 대신 함께 발전해 가자. 10개 협회가 1961년도에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1962년에 연합체로 만들었는데 관이 개입된 겁니다. 그래서 예총이라는 것 자체가 극우 보수의 출발이 아닙니다. 극좌와 극우의 조직이 통합된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것을 감안하면 그런 역사성을 암묵적으로 연혁에 담고 오면서 오늘날에 이룬 것 중에 대표성이 이겁니다. 그런 가치 부여를 하자면 이것은 양단의 논리로 가기보다는 상생의 논리로 가자는 것을 제안드리고요. 더 발전시키는 방안으로 한번 구성하도록. 그래서 해당 단체들, 해당 대표성을 가진 분들과 우리 9기 위원회가 함께 고민하면 오히려 파이를 더 키울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문화예술 쪽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칼질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으면 뭔가 보완하고 조탁을 해서 뼈를 깎는 아픔이 있어도 발전시키자는 게 우리 위원회의 정체성이지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니까 이렇게 하자고 조경을 하는 그룹이 아닙니다. 그 취지를 공감해 주시면 이 부분 또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정규회의나 임시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럴 때는 보완적인 준비를 각 부처팀별로 준비해 주세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의견은 얼마든지 열린 회의로 진행하면서 보완해야 되니까요.

**성기숙 위원 :**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안건으로 대한민국공연예술제 예술위 지정교부 결정 내역 사전보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오늘 보고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죠?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예. 다음 7월 회의 시에 오늘 의견을 반영해서 의결안건으로 정리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성기숙 위원 :** 오늘 결정되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것이고요. 한 달간 논의를 진행하면 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이범현 위원장 :** 그렇죠. 오늘 안건으로 보고를 드린 것은 차기 정규회의에 의결안건으로 올리기 위한 사전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7월 정기 위원회에서 의결안건으로 부의가 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또 논의되었던 내용을 사전에 조율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것을 해서 그때 의결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달간 유예기간이 있는 거죠.

**성기숙 위원 :** 위원장님 말씀 경청을 잘 했는데요. 예총 산하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는 사무처에서 아니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어요. 협회에서 국고지원금,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예총 산하 협회들이 기금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를 조사해서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극협회 같은 경우에는 연극의 현황과 생태계가 무용과는 매우 다르다는 생각이 들고요. 무용은 예전에 전국무용제와 서울무용제 2건만 지원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협회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무용인들의 권리 증진이나 복지, 무용인을 대변해서 정부를 상대로 창구가 되는 활동에 집중되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정부의 지원금을 다다익선으로 많이 받다 보니까 무용계가 양극화

되고 생태계가 무너지고 협회가 특정 대학교수들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아까 말씀처럼 긍정적으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폄하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 안건으로 올라온 것에 대해 오해하지 마시고요. 제가 폐지를 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무용계의 건강한 생태계 구조와 발전적으로 지향해서 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운영의 방식이나 운영의 주체를 논의하자는 취지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지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더불어서 정부의 국정 기조인 지역 활성화도 감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과도기고 변환점에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범헌 위원장 :** 의견 말씀 잘 들었고요. 마무리 요약 말씀해 주십시오.

**차지연 위원 :**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국무용계의 존재의 문제를 논의한 것이 아닌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지정지원사업으로 진행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실연자를 위해 어느 것이 효과적인 방법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항상 무용계 실연자들을 위한 입장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데에서 힌트를 얻었는데요, 무용계의 전반적인 의견을 폭넓게 들을 수 있는 토론장을 만드는 것도, 현장의 생각을 수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의견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성기숙 위원 :**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서영수 위원 :** 저는 질문을 할 게 있어서요.

**이범헌 위원장 :** 그러면 서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시죠.

**서영수 위원 :** 보여주신 자료에 보면 지금 동일단체 다중지원이나 실질적 동일단체 관련한 행사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런 행사들, 그러니까 형식적인 지원 말고 이 행사들에 대한 심도 있는 평가서가 있습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하면서 실제 평가를 했을 것 아닙니까?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전담심의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과 평가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러니까 평가 내용들이 있습니까?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예, 있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것을 저희들한테 주시죠. 그래야 결정을 할 때 참고를 할 수 있으니까요.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예, 알겠습니다.

**서영수 위원 :** 그리고 올해 이 사업들에 대한 공고를 하셨잖아요. 사전 예고 내용으로요. 올해 공모사업을 하실 때 동일단체 중복지원 불가 또 동일단체 중복선정 불가라는 공고를 미리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불가라고 예술위원회에서 올해 심의 때 반영을 하겠다고 공고를 했는데요.

**문삼화 위원 :** ‘불가’라고 결정이 난 건가요?

송시경 사무처장 :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올라올 때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불가하다고 결정을 내린 게 아니고요. 작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2027년도 사업을 할 때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온 것이지 그렇게 결정이 되었으면 이렇게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문삼화 위원 : 그렇죠.

이범현 위원장 : 이 해석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동일단체, 실질적 동일단체 다중지원 불가의 건이라고 해서 회의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은 다중지원에 대해 그동안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그 건에 의해서 문제제기 되는 부분들을 표에 의해서 검토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공모하는데 나갔다는 뜻은 아니고요.

서영수 위원 : 내용을 읽어보면,

성기숙 위원 : 문건으로 나갔습니다.

서영수 위원 : 중복지원이 불가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기숙 위원 :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2024년부터 ○○위원회, ○○운영위원회가 중복된다고 일관되게 말씀을 드렸고요. 사무처에서 그것을 개선하겠다고 계속 이야기를 해 왔고요. 오늘 논의되는 이것이 위원회에서 주최한 현장업무보고, 8기 위원장님도 토론회에 참여해서 마무리 말씀도 하셨어요. 위원회에서 주최한 현장업무보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현장토론회 때 다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브리핑을 했고 위원장님도 끝마무리에 개선을 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들입니다. 전국무용제도 그렇고 동일주체 중복 지원 문제도 그렇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개선이 되지 않고 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도 공고가 나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 다 활자화 돼서 명시된 내용입니다.

이범현 위원장 : 공모요강에요.

성기숙 위원 : 예.

이범현 위원장 : 사실관계를 얘기해 주세요.

송시경 사무처장 :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정을 했으면 이 얘기를 논의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기숙 위원 : 아니, 확정이 안 되었는데 공모요강이.

김대현 위원 :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논의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위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신 것 같아요. 사업의 성격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수혜적인 지원사업인지? 아니면 기초예술 토양을 위한 성격인지가 논의된 후에 중복지원인지 별개의 사업인지를 검토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여기에서 디테일하게 나가면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의견을 정리하고 의결 전까지 숙고한 다음에 그 부분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범현 위원장 :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충분히 토론이 된 것 같고요. 그런 만큼 이것에 대한

조금 더 심사숙고 해 주시고요. 수기된 부분을 7월 정기회의에서 논의하면 됩니다.

**성기숙 위원** : 아까 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평가. 평가를 다 공유해 주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평가를 다 공유해 주시고 현장업무보고 때 내용도 다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보도 내용까지요. 그래야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이범헌 위원장** : 기존 자료의 형태는 사무처의 기준에 의해서 수집된 평가 내용들을 준비할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가요?

**조용주 공연예술팀장** : 현재는 아직 진행 중인 사업이라 올해 기준으로는 내년 초가 지나야 되고요. 다만, 전년도 기준으로는 완성된 평가모니터링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 준비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범헌 위원장** : 예. 그러면 작년도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2025년도, 2024년도 내용들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일단은 2025년 것을 기준으로 먼저 해 주시고요. 자료가 더 필요하다고 하면 2024년 것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 자료 준비를 해 주세요.

여기까지 논의를 했고요. 추가적인 의견이 더 없으시죠? 이 부분은 일단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일단 보고안건을 접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라고 하는 위원 있음)

**이범헌 위원장** :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범헌 위원장** : 이렇게 해서 좋은 토론을 마치고요. 다소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런 토론을 통해서 조금 더 효율적인 진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우선 회의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사무처장은 향후 진행될 위원회 날짜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회의 일정 조정)

## 6. 폐 회 선 언

**이범헌 위원장** : 회의를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22차 전체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43분 회의 종료)